

張保臯大使에 관한 研究 動向

姜 祥 澤*

< 目 次 >	
I. 머리말	2. 在唐活動
II. 研究의 實態	3. 青海鎮과 海上貿易
III. 主題別 研究 現況	4. 政治活動과 海上王國의 沒落
1. 張保臯의 生涯	IV. 맺음말

I. 머 리 말

장보고에 관한 연구는 우리 역사상 최초로 해운 산업과 국제 무역을 개척하였다는 점과 東洋圈(韓·中·日)의 해상권을 지배할 수 있었던 해상 왕국을 건설했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장보고와 관련한 해상 활동 및 그의 정치적 영역, 또는 在唐 신라인의 실태까지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그의 활동 무대와 관련한 청해진(완도)에 대한 考古學的 발굴 작업까지 병행되어 활발한 연구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먼저 장보고에 관한 국내 자료로서는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정된 국내 자료를 통하여 장보고의 활동이 신라 국내 정치와 연관되어 謀叛 혐의를 가졌다는 단편적인 기록때문에 正史라는 王朝 중심의 역사 속에 매몰됨으로써 고대사 연구자들의 관심을 벗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장보고의 역사적 활동에 관한 연구는 고대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한국역사학)

사 연구자들이 아닌 經濟史, 海洋史, 農業史, 國史 편찬 위원회 연구사를 중심으로 그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은 일찍 장보고의 활동 영역이었던 완도(청해진)의 莞島文化院을 중심으로 완도 역사의 재조명이라는 측면에서 크다란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장보고의 신 연구¹⁾가 이루어졌다. 완도 문화원에서 발행한 청해진 장보고 대사²⁾의 기록은 『三國遺事』, 『三國史記』의 국내 자료를 중심으로 장보고의 출생부터 해상 활동, 정치활동의 역사 문제를 재정립하면서 장보고 대사가 완도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장보고에 관한 자료의 정리는 완도 지역 중심의 인물사에 불과할 뿐 많은 연구를 필요하게 하고 있다.

장보고에 관한 국내 최초의 연구는 1934~5년 金庠基 박사의 「古代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³⁾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고대 무역의 형식에서 조공 무역의 형태를 서술하고 있고 신라 말기의 해상 발전에서 장보고의 출현과 그의 의의를 밀도 있게 정리하고 있다.

그후 국내 장보고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해주었던 한국해양대학의 李永澤교수⁴⁾의 장보고에 관한 연구는 해상 무역의 형태에서 신라의 무역 구조가 국제적 무역 형태로 변모 하는 과정과 장보고의 활동이 미쳤던 국제 관계의 실태를 밝히고 있다. 또한 在唐 居住 民族의 삶의 형태를 밝히려는 시도에서 출발되었던 신라방에 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정리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때 金庠基 박사 이후 장보고에 관한 관심은 드넓게 확장되고 있었지만 장보고에 관한 그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논문으로 크게 주목되고 있다.

그후 동국대학의 李基東교수⁵⁾는 장보고의 출신 문제,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과정, 해상 왕국의 성립과 몰락 관계를 체계 있게 정리하고 있다. 1988년 「張保臯大使 海洋經營史 硏究會」가 구성되어 장보고의 활동과 관련한 해로, 활동지역, 신라방의 실태, 무역 상품의 내용, 장보고의 정치, 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⁶⁾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장보고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해운사,

1) 莞島文化院, 「張保臯의 新研究」, 時事文化社, 1985.

2) 莞島文化院, 「이 고장을 빛낸 淸海鎮 張保臯大使」, 1994.

3) 金庠基, 「古代的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 發展에 就하여 - 淸海鎮大使 張保臯를 主로 하여」 1·2, 震檀學報, 1934, 1935.

4) 李永澤, 「張保臯 海上勢力에 관한 考察」, 「論文集」 14, 韓國海洋大學, 1979.

5) 李基東,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 「張保臯의 新研究」, 時事文化社, 1985.

해양경영사 정치, 군사, 장보고의 생애에 관한 연구로서 그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동향을 연구의 실태와 주제별 연구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장보고에 관한 연구 현황을 밝혀 보려 한다.

Ⅱ. 張保臯 研究의 實態

지금까지 장보고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 모두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관계 자료의 결핍 때문에 연구의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겠다. 다만 장보고에 관한 국내 자료가 가지는 역사적 인식에 따른 문제점(謀叛)때문에 그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으며, 연구의 영역도 확대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보고에 관한 국내 기록으로서 유일한 것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들 수 있는데, 이들 기록은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이 초점을 맞추려 했던 해상 활동 또는 해상 무역 관계에 대한 기사보다는 단지 그의 국내 정치 활동과 관계된 문제에 치중해 있다는 점이다.

『三國史記』列傳, 張保臯 鄭年의 기록은 장보고에 관하여 僖康王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閔哀王을 제거하고 神武王을 옹립하는데 공을 세운 충의의 인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기록은 장보고와 정년의 관계를 통하여 장보고의 위인적 성품을 서술하고 있다. 이는 권근의 「동국사략」에도 같은 내용이 기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三國史記』의 기록은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들여 보내려다가 실패하여 마침내 반란의 주모자로서 역적으로 정립되어진다. 이는 『三國遺事』의 기록도 음모의 좌절과 閔長에게 살해당하는 기록만으로 장보고를 역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보고에 관한 유일한 국내 기록이 否定的 자료로 남아 있었던 이유 때문에 장보고에 관한 연구의 폭이 좁아졌고 연구의 영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장보고에 대한 재조명의 노력은 일본이나 중국의 자료에 의존해야 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처음으로 시도한 분이 金庠基 선생이었으며 1934~35년에 걸쳐 진단학보에 발표한 선생의 논문⁶⁾은 장보고에 대한 역사 인식의 재정립과 한·중·일의 외교 관계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

6) 海洋經營史研究, 「張保臯」, 圖書出版 李鏞, 1993.

7) 위의 논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선생은 일본 천태종 고승이었던 圓人의 「入唐求法巡禮行記」를 비롯하여 「續日本紀」, 「日本後記」, 「續日本後記」 등의 일본 자료와 「新唐書」, 「舊唐書」, 「樊川文集」 등의 중국 자료를 인용하여 한·중·일의 무역 관계에 있어 장보고의 위치와 역할 또는 장보고의 영웅적 활동 상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고 있다. 선생께서는 「장보고야말로 우리 나라 역사상 바다를 다스리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원리를 몸소 실현한 해상 제국의 건설자」라고 표현하면서 고대 무역의 실태와 羅末 해상 무역의 발전 과정을 장보고의 활동과 연계짓고 있었다. 이후로 국내에서는 고대 사학자 보다 해양, 농업경영, 무역 관계의 연구자들에 의해 장보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장보고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각대사 圓人⁸⁾에 대한 연구가 1925년대부터 일본 학자들⁹⁾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기록에 나타난 장보고의 활동이 많은 부분에 걸쳐 소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보고 연구와 관련한 일본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보면,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표 1>에 나타나는 일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는 국내 장보고 연구자들이 인용했던 대표적인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장보고 활약 시기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당에서의 신라인 취락 문제로 부터 신라인의 해상 활동, 해상 교통과 연계된 항로문제, 무역활동에 나타나는 교역품, 신라말의 정치문제등에 관한 연구의 실태이다. 물론 표에 나타난 자료는 한정된 것이며 장보고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논문중에서 石井正敏의 「圓人と張保臯」¹⁰⁾ 浦生京子の 「新羅末期張保臯의 擡頭와 叛亂」¹¹⁾이란 주제를 가지고 직접 장보고의 인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8) 圓人の 行記를 통하여 在唐 新羅人の 分布와 組織, 生活相을 研究한 代表的 論文으로 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金文經, 「在唐 新羅人の 集落과 그 構造」, 「李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1969.

李永澤, 「9世紀 在唐韓國人에 대한 考察」, 「韓國海洋大學 論文集」 17, 1982.

9) 今西龍, 「慈覺大師入唐求法巡禮行記를讀みて」, 「新羅史研究」 1933.

岡田正之, 「慈覺大師의入唐紀行に就いて」, 「東洋學報」 13 - 1, 1925.

<표 1> 張保皋 研究와 관련한 日本學者들의 研究現況¹⁰⁾

時期 研究者	主題 圓人の入唐 求法巡禮 行記	新羅人の 海上活動	中國에서의 新羅人の 聚落	海上交通 (航路)	貿易活動	交易品 (陶瓷器)	新羅政治
1920 - 1940	岡田正之 今西龍	內藤雋輔		那波利貞	田村專之助		
1950 - 1960		藤間生大	內藤雋輔 佐伯有清 浦生京子	日野開三郎			藤田亮策
1970 - 1980					石井正敏	三上次男	村上四男 浦生京子 井上秀雄
1980 - 1990			浦生京子	石井正敏	石井正敏	吉岡完祐 三上次男	村上四男

* 일본 연구자들의 研究現況은 參考文獻 參照

이와 같은 일본 연구자들이 제시한 제반의 자료와 함께 주일 대사를 지낸 바 있는 미국 하바드대학의 「Edwin. O. Reischauer」교수가 쓴 「Enninn's Diary」는 장보고의 활동을 재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주목되고 있다. 특히 그의 저서 가운데 장보고를 <해상 상업 제국의 무역왕>으로 표현한 부분은 역사의 그늘에 있었던 장보고의 연구를 해운 산업, 국제 무역의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金庠基 선생 이후 국내 연구자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장보고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장보고와 직접 관련된 연구는 아니었지만, 1967 - 1969년에 걸쳐 金文經교수(숭실대)는 「在唐 新羅人の 集落과 그 構造」라는 연구에서 신라방의 실태를 밝히고 있었고, 또한 「赤山 法花院의 佛敎樣式」이라는 논문을 통해 장보고의 활동 영역을 제시하고 있었다.

10) 日本研究者들의 대표적 論文은 다음과 같다.

那波利貞, 「朝鮮支那間の航路及其推移に就て」, 『內藤博士頌壽記念論叢』, 1930.

內藤雋輔, 「唐代中國における朝鮮人の活動について」, 『朝鮮史研究』, 1961.

藤間生大, 「九世紀における新羅人の海外での活躍」, 『東アジア世界の形成』, 1966.

石井正敏, 「九世紀の日本・唐・新羅 三國貿易에 對하여」, 『地理와 歷史』, 394호, 1988.

「圓仁과 張寶高」, 『海上の道と上古人』, 毎日新聞社刊.

日野開三郎, 「羅末三國の 定立と 大陸海上交通貿易」, 『朝鮮學報』 16, 1960.

11) 石井正敏, 「위의 論文」.

12) 浦生京子, 「新羅末期의 張保皋의 擡頭と 反亂」,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1979.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1970년 이후 최초로 장보고에 관한 집약적인 연구가 한국해양 대학교의 李永澤 교수(작고)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교수는 「장보고의 해상세력에 관한 고찰」이란 논제로 신라 하대 대당무역의 실태를 통해 해상 무역의 경위를 밝히면서 장보고 해상 무역 활동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또한 신라방과 장보고의 역할, 청해진과 장보고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하여 장보고의 몰락까지를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장보고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길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후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표 2>에서는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현황을 연구자들이 설정한 주제별로 정리해 본것이다. 연구의 주제에 따라 살펴보면 장보고의 일생 즉 탄생과 신분, 성장과정에 관한 것은 자료의 결핍이란 이유로 그 연구 업적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연구자 전체가 일정한 항목을 설정하고 장보고의 생애와 관계된 부분들

<표 2> 國內 研究者들의 張保臯 研究現況¹³⁾

時期 研究者	主題 張保臯의 生涯	海上 貿易	貿易 船舶	氣像 航路 交通	海上 勢力	政治	新羅房	說話	資料
1975 - 1980	朴斗圭	盧德浩	金在瑾	金在瑾 金裕赫 孫兌鉉	李永澤 愈漢根	盧泰敦 崔柄憲			
1980 - 1985		姜龍洙				金光洙 朴東百	李永澤		
1985 - 1990		金德洙 李址斗		李基東	尹炳喜 李明植			晉永美	鄭泰辰
1990 - 1995	金旻旭				金文經 李鍾學	李基東	金文經		鄭清注

* 國內 研究者들의 論文은 參考 文獻參照

13) 張保臯 研究와 관련한 國內 研究者들의 代表的 論文은 다음과 같다.

金文經, 「唐 高句麗 流民과 新羅 僑民」, 日新社, 1986.

金在瑾, 「韓國 船舶史 研究」, 1984.

「張保臯 時代의 貿易 船舶과 그 航路」, 「張保臯의 新研究」, 1985.

金光洙, 「張保臯의 政治史的 位置」, 「張保臯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1985.

「蚩尤와 貂族」, 「孫寶基博士 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產業社, 1988.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 政治 - 특히 興德王 9年에 頒布된 諸規程의 政治의 背景에 대하여 - 」, 「韓國史研究」 39, 1982.

서술하고 있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1979년 『創作과 批評』에 투고 형식으로 발표된 「淸海鎮大使 弓福論考」는 연구자 朴斗圭씨가 완도 출신이란 이유로 장보고와 완도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하여 그 生涯를 밝히고 있다.

장보고의 일생에 관한 문제는 모든 연구자들이 서두에서 『新唐書』, 『三國史記』, 『三國遺事』 등을 인용하여 장보고의 생애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은 만족하지 못한 실정이다. 해상 무역 관계는 1979년 李永澤 교수가 장보고의 해상 세력 형성 과정에서 무역 관계를 밝힌 후 盧德浩 교수(고려대)가 「羅末新羅人の 海上貿易에 관한 研究」를 통해 韓·中·日의 무역 실태를 장보고의 등장과 관련하여 고대 무역의 유형을 밝히고 있다. 그후 마산대의 姜龍洙 교수가 「韓國貿易의 史的研究 - 羅末 對外貿易을 中心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나말 장보고를 중심으로한 무역의 유형과 한국 무역의 발전 관계를 연결지어 서술하고 있다. 金德洙 교수(군산대학)는 「張保臯의 海上貿易에 관한 一考察」을 통해 장보고의 입당 사정과 在唐 활동을 정리하면서 장보고의 생애와 재당활동의 기반을 고구려 유민인 李正己 一家의 몰락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특이한 점은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와 관련한 해상 세력의 문제를 국내, 국외자료를 통해 前衛體制(장보고의 私組織體系)의 정립과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상 무역의 문제를 金在瑾 교수(전서울대)가 「張保臯時代의 貿易船과 그 航路」라는 논제로서 선박의 형태, 항로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 또한 金裕赫 교수는 「張保臯의 制海 氣像小考」를 통하여 선박의 운항과 기상 문제를 밝히고 있었고 孫兌鉉 교수(전해양대)는 「古代에 있어서의 海上交通」이라는 논문을 통하여 고대, 무역관계와 해상물류의 이동 문제에 관해 다양한 자료를 인용하여 해상 교통의 문제를 확인하고 있었다.

장보고 연구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역시 장보고의 해상 활동을 통한 해상 세력의 형성이란 점이다. 이는 앞에서 밝힌 李永澤 교수(전해양대)의 치밀하고 세분화된 연구 이후 李基東 교수(동국대)가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을 통하여 장보고의 출신과 신분 문제, 渡唐의 계기와 在唐활동에서 徐州, 武寧軍 小將으로의 진출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이교수의 주제는 광범위하여 청해진 설치 과정, 국제 무역 관계로부터 해상 왕국의 몰락까지 장보고의 활동 전반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은

장보고 시대의 정치사적인 문제, 즉 신라 말기 장보고와 중앙 정부의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는 장보고의 일생이 叛逆이라는 正史的 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기동 교수의 업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기동 교수와 같은 의식을 가진 연구자들은 정치사적 측면에서 장보고의 생애를 새롭게 재조명하려는 연구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었다.

金光洙 교수(건국대)는 「張保臯의 政治史的 位置」에서 장보고 해상 세력의 구성과 성격이란 측면에서 장보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면서 장보고의 신라 조정과의 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尹炳喜씨는 「新羅下代 均正系의 王位繼承과 金陽」의 논문에서 신라 하대 무열계인 김주원의 증손 김양이 원성계인 균정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한 이후에 차지하는 정치적 위치와 김주원계인 김양이 완성왕계 안에서 벌어진 왕위 쟁탈전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의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정리하면서 신라 하대, 장보고의 정치 개입과 관련된 지배층의 권력 구조를 살피고 있다.

당에서의 신라인 활동 상황, 즉 신라방의 구조에 관해서는 장보고 연구 이전부터 나·당관계사를 정립하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李永澤 교수(전해양대)는 「9世紀 在唐 韓國人에 대한 考察」이란 주제를 통해 당에서의 신라인의 주거 활동 관계를 장보고와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었다.

장보고 연구 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논문으로서 성균관대(국문과) 대학원생인 晉永美가 「張保臯의 說話化 과정과 그 樣相」이란 논제로 장보고의 일생을 설화 문학적 특성과 연결시켜 장보고 연구에 새로운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三國遺事」에 소개되어 있는 <神武王, 閻長, 弓巴>의 설화를 중심으로 국문학적 연구 방법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었던 특성을 지니고 있다.

麗水 水産大 교수인 鄭清柱는 지금까지 장보고 연구의 관계 자료를 정리하는 「張保臯 관계 史料의 檢討」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다. 우선 그 내용은 중국 사료로서 杜牧(803 - 852)의 장보고 정년전을 수록하고 있는 「樊川文集」 권(6)의 장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록하여 해설하고 있으며, 「新唐書」 및 「舊唐書」에 나타나는 장보고 鄭年에 관한 사료도 전제하고 있다. 한국 사료로서 「三國史記」 신라본기 기록과 「三國遺事」의 사료도 전제하고 있다. 다음 일

본 사료로서 장보고와 관련된 부분만 정리한 圓人의 「입당구법 순례행기」 사료와 「속일본기」 사료 일부를 정리함으로써 장보고 연구자들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이상에서 지금까지 국내 연구자들이 장보고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던 연구 실태를 파악한 셈이다. 他 領域에 비해 많은 연구는 아니지만 장보고에 관한 연구가 시작된 시기가 1975 - 1995년까지로 파악된다면 비교적 장보고의 재조명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정리되었다고 보아야겠다.

이와 같은 연구는 고대 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이라기 보다 무역, 해운, 경영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장보고 연구의 연구 성과와 함께 연구의 집약적인 성격을 가진 두권의 저서가 발간됨으로서 지금까지의 장보고 연구를 정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하나는 1985년에 발간된 「張保臯의 新研究」 - <淸海鎮 活動을 中心으로>¹⁴⁾이다. 이는 장보고의 출생 지역과 활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완도(청해진)군의 완도 문화원이 주관하여 지방 사적 측면에서 장보고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시도하고 있음을 특색으로 하고 있다. 「장보고 신 연구」는 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보고의 활동에 대한 조사 고증을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하여 국사편찬위원회의 연구관, 연구사 및 교수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수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의 의의는 청해진의 현지답사를 통하여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수록하였다는 것과 신라 하대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 속의 장보고 행적과 그의 생애를 재조명했다는 데 들 수 있을 것 같다.

이 저서는 3편으로 구분하여 연구 성과를 수록하고 있는데 1편은 완도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한 연구 내용이다. 金暘玉(국사편찬위연구사)은 「莞島의 文化的 考察」에서 완도 지역을 신석기 시대부터 역사 시대까지의 근거지로서 청해진을 재조명하려 하였다. 姜英哲(국편연구관)은 「莞島의 歷史的 考察」이란 주제를 통하여 완도 지역의 자연 조건을 중심으로 삼국 시대로부터 개항 이후까지 완도 지역 특성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였으며, 특히 완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각면의 연혁까지 정리하여, 청해진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14) 이 著書는 莞島, 즉 淸海鎮의 再 照明이라는 입장에서 莞島郡의 莞島 文化院이 주축이 되어 國史編纂委員會를 中心으로 이루어진 目的研究의 決算이라 보아진다.

제2편은 장보고에 관한 연구이다. 金光洙 교수(건국대)의 「張保臯의 政治史的 位置」라는 연구 논문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장보고의 성명, 출생, 장보고 세력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여 비교적 장보고의 생애에 관한 광범위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李基東 교수(동국대)의 「張保臯와 그의 海上 王國」은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장보고의 출생부터 해상 왕국의 몰락까지 비교적 미세한 부분까지 다양한 자료를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 논문은 1986년 3월부터 9월에 걸쳐 「海運港灣」에 재수록하고 있다. 그 다음은 金在瑾 교수(전서울대)의 「장보고 시대의 무역선과 그 항로」라는 논문도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 논문 역시 1988년 「海運港灣」지에 재수록하고 있다.

제3편은 청해진 연구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方東仁 교수(관동대)의 「淸海鎮의 戰略上 位置」라는 논문은 청해진이 당과 일본이 통과해야 하는 지리적 위치를 통하여 청해진이 가지는 전략상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다음 鄭泰憲(국편연구원)의 「淸海鎮과 他軍鎮과의 比較的 考察」이란 논문은 청해진의 군사적 위치를 재조명하면서 軍鎮의 설치 배경과 성격을 파악하고 군진 유적들을 통해 청해진이 가지는 군사적 의의를 부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 崔根泳, 閔德植(국편연구원, 연구사)의 공동 연구로 작성된 「淸海鎮의 歷史的 考察과 그 城의 分析」이란 논문은 장보고의 활동 시기에 나타난 청해진 성곽의 공법과 그 구조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고증할 수 있는 청해진 성주변의 유적을 정리하여 청해진 성곽의 문제를 광범위하게 정리한 업적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장보고 연구의 집합적, 목적연구의 성과로 1993년에 편찬된 海洋經營史 研究會의 「張保臯」¹⁵⁾라는 저서가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장보고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현장 답사 및 고증 활동을 통하여 장보고 연구의 집약적인 정리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장보고 대사 해양경영사 연구회는 1989년 8월 한국해운산업연구원이 주최한 해운업 최고 경영자 세미나에서 金成勳 교수(중앙대 : 농업경영사)가 「張保臯大使의 海洋經營史」를 발표한 자리에서 선주 협회

15) 이 著書도 目的研究의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는 船主協會의 後援아래 國內, 國外에 걸쳐있는 장보고와 관련한 遺蹟地의 踏査를 통하여 장보고의 行蹟을 재조명하려 한 것이다.

가 장보고 대사 해양경영사 연구 후원을 결성하면서 이루어졌다. 연구 회원으로 참여한 분은 孫寶基(한국선사문화 연구소장), 金文經(숭실대), 尹乃鉉(단국대), 金井昊(무등일보), 崔光男(문화재연구소), 金成勳(중앙대), 金瓚暻(중앙대)교수 등이었다.

해양경영사 연구회는 1989. 11. 11에 정식 발족하고 선주 협회의 후원에 따라 장보고 대사의 연구를 문헌적인 것으로부터 장보고의 활동 영역에 대한 유적 조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① 국내 유적지 조사 ② 중국 산둥성 답사 ③ 중국 절강성, 강소성, 하남성, 북경지역에 관한 조사 ④ 일본구주 및 경도 일대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문헌에만 의존해 왔던 장보고 대사의 연구를 현장 중심의 연구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장보고 해양경영 연구사」는 실증 연구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장보고 연구 내용이 진일보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 내용은 주제별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目的研究

金井昊, 「莞島 淸海鎮의 自然과 人文」

尹乃鉉, 「中國 東部海岸地域과 韓半島~滿洲地域의 相互關係」

金井昊, 「海流와 韓·中 航路」

金文經, 「張保臯 海上王國의 사람들」

金井昊, 「西南沿岸의 對中遺蹟과 淸海鎮」

趙由典, 金聖範, 「莞島 淸海鎮 遺蹟에 관한 一考」

金井昊, 「康津靑磁와 淸海鎮」

② 一般研究

崔在錫, 「張保臯와 그의 政治, 軍事集團 研究의 基本視角」

李宗勳, 「中國山東半島에서의 張保臯와 新羅人들」

③ 國外 研究者의 論文

朱江(中國), 「唐과 新羅의 海上交通」

林士民(中國), 「唐代 東方海上活動과 明州港」

吉岡完祐(日本), 「高麗靑磁의 出現」

Hugh. R. Clark(美國), 「8 - 10世紀 韓半島와 南中國간의 貿易과 國際關係」

해양경영사 연구회의 연구 성과는 위에 나타난 연구의 유형이다. 이를 임의

로 연구 성과를 3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목적연구, 일반연구, 국외연구자의 논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목적 연구는 연구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나타난 논문을 말하는 것이다. 즉 장보고의 활동 지역과 관련한 국내와 국외(중국, 일본)에 산재해 있는 유적지나 장보고의 일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지역을 답사한 후 현장 중심의 실체적 연구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 연구에서 金井昶 관장(전남 농업박물관) 관장은 4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장보고의 활동 영역이었던 청해진을 자연과 인문 또는 중국 지역의 유적과 관련한 청해진의 유적에 대한 재고찰, 그리고 청해진을 근거지로 한 韓·中 항로의 재조명과 장보고의 무역 활동과 관련한 강진 자기의 생산이라는 연구 성과를 통해 청해진과 장보고와의 관계를 광범위한 현장 답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 업적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金文經 교수(숭실대)는 장보고의 對·唐, 對·日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현장 답사를 통하여 신라인의 집락과 해상 활동을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특성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연구로서 崔在錫 교수(고려대)는 장보고를 기존의 연구 논문에서 상인출신, 또는 무역왕으로 이해하는데 반대하고 장보고를 강력한 군대와 해상권을 장악한 군인이며, 정치가로서 재조명하고 있다.

그외 국외 연구자들(朱江, 林士民, 吉岡完祐, Hugh. R. Clark)의 논문은 장보고의 해상 활동과 무역 관계를 밝혀주는 중요한 시각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크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해양경영사 연구회의 활동은 장보고 연구에 대한 지표를 제시해 주었으며, 지금까지 고대 사학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장보고에 관한 연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데 크다란 공헌을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Ⅲ. 主題別 研究 現況

1. 張保臯의 生涯

1) 出身

장보고의 출생에 관한 견해는 『三國史記』列傳 장보고 傳의 기록이나 『三國

遺事」의 기록에 의존하여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출생지를 밝히고 있다. 金光洙 교수(건국대)는 「張保臯의 政治史的 位置」(1985)에서 국내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海島人」이라는 기사를 유추하여 인근의 여러 島嶼들가운데서 특별히 완도에 청해진을 설친 것은 그의 출생지가 완도였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장보고의 출생 문제는 「三國史記」 장보고 정년전에서 「그의 鄉邑과 父祖를 알 수 없다」라는 기록 때문에 연구자들은 그의 출생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李永澤 교수(전 해양대)는 「張保臯 海上勢力에 관한 考察」에서 완도가 장보고의 실고향이라는 문헌상의 자료나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추해 본다면 「三國遺事」, 「三國史記」의 자료에서 보이는 장보고 딸의 納妃에 대한 경주 귀족들의 반대이유가 「海島人」이기 때문이다라는 문제로 미루어 본다면 그의 출생지가 한국의 해도 혹은 해안 지방 그것도 서해안 지방이라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장보고 출생에 관한 견해는 일찍 金庠基 교수는 「古代的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장보고가 다도해 중에서 완도에 設鎮한 것은 항읍과 관련된 것이라고 논하였으며, 특히 청해진의 해상 위치를 잘 알고 있는 해도인으로서 장보고가 일찍부터 청해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하였다.

李基東 교수도 「張保臯와 그의 海上王國」에서 金庠基 교수와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지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는 장보고 연구자들의 대부분 논문에서 설득력 있는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姓 名

다음 장보고의 성명에 관한 국내 기록중 「三國史記」 신라본기에 <弓福, 姓, 張氏(一名: 保臯)>라 나와 있고 「三國遺事」에는 弓巴로, 중국 자료 「張保臯, 鄭年傳」, 「樊川文集」권6과 「新唐書」의 기록에 張保臯로 나타나 있다.

일본 자료, 「入唐求法巡禮行記」와 「續日本後記」기록에는 <張寶臯>라고 나타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仁同張氏 大同譜」(권1)의 舊譜序文과 「張氏 淵源寶鑑」에 의하면 장보고의 아버지 伯翼은 중국 浙江省 蘇州府 龍興 사람으로 偉는 萬里인데 몇 차례 동국을 내왕하다가 귀화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장보고는 인동장씨의 중시조쯤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인 인명 또는 중국 지명 등의 기록은 다소 신뢰성이 희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밝혀지는 장보고의 이름에 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국내 자료인 『三國史記』의 기록이 중국 사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金庠基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삼국유사에 다만 궁파로 기록된 것을 통하여 유추한다면 궁복, 궁파는 동음이자 그의 원명이라 했으며, 장보고라는 것은 궁복(궁파)이라는 것으로부터 전화된 중국식 성명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李永澤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장보고는 원래 성도 없는 「궁복, 궁파」로 입당후 중국에서 「張保臯」로 일본에서는 무역 왕을 상징하는 「張寶臯」로 호칭되었다고 했으며, 盧泰敦 교수는 「羅代の 門客」(1978)에서 궁복, 궁파의 의미에 대하여 福과 巴는 同音異似로서 童의 뜻이므로 “활보”, 즉 활 잘 쏘는 아이라고 지적하였다.

金光洙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궁복, 궁파는 신라계 이름에서 아이를 의미하는 보의 차음 표기이므로 성씨 사용이 일반화하지 않은 신라의 원래 이름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 외 연구자들의 견해도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할 뿐 그의 같은 성격으로 서술하고 있다.

3) 身 分

다음 신분에 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6두품이하의 평민, 하층계층이란 견해와 또 하나는 해상 세력의 형성과 관련한 호족 출신 계층이란 견해이다.

신분에 관한 문제는 국내 자료 『三國史記, 三國遺事』에 納妃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난 「海島人」이라는 부분과 연결하여 그 신분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李永澤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海島人]과 관련하여 6두품이하의 계층이라 하였고, 浦生京子は 「新羅末期の張保臯の擡頭と叛亂」(1975)에서 「海島人」이라는 표현에는 평민 백성과 구별되는 의미가 있다고 하여 장보고의 신분을 천민으로 추측하였다. 포생경자와 같은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李基東 교수는 「앞

의 논문」에서 국내 사료중 納妃 문제와 관련하여 나타난 (側徵)하다는 표현에서 하층계급 출신으로 단정하고 있다. 金光洙 교수는 이러한 견해와 다르게 「앞의 논문」에서 장보고의 초명이 궁복이라 불리워진 이유는 활을 잘 쓴다는 의미이며 渡唐하여 용장으로 출신할 수 있었던 이유도 출생 자체가 그 지역 호족 출신의 자제로서 성장하였으므로 가능하다고 하여 호족 토호 층으로 단정하고 있다.

2. 渡唐 活動

1) 渡唐의 契機

장보고의 도당 시기는 「樊川文集」(杜牧)에 나오는 「新羅人張保臯鄭年者 自其國來徐州 爲軍中小將 保臯年三十」이라는 기사를 통하여 장보고의 도당은 810년경 20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장보고의 도당 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되어지고 있는 것이 연구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첫째, 신라 말기 9세기초 헌덕왕(809 - 826)때 부터 나타난 정치적 혼란과 관련하여 서술되는 경우이다. 즉 부역, 조세의 과중과 기근 발생이 가져온 중앙 권력과 민중 세력의 마찰 확대라는 측면에서 자활의 길을 찾는 민중들의 도당과 관련하고 있다는 견해다.

둘째, 엄격한 골품 신분제도 안에서 입지의 한계를 느낀 장보고는 개방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唐으로의 진출을 꾀했다는 견해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李基東 교수가 「앞의 논문」에서 장보고의 도당 계기를 헌덕왕 6년부터 14년간에 나타나는 사회적 혼란 과정을 서술하면서 민중들이 자활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渡唐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으며, 7세기초 6두품 계층인 설계두의 도당을 통한 입신출세를 예로 하여 장보고의 도당 계기를 밝히고 있다.

金光洙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도당 계기를 단순히 장보고의 입신출세를 위한 목적으로 도당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으며, 朴斗圭씨도 「淸海鎮大使 弓福論考」에서 신라 하대의 정치 상황을 소상히 서술하면서 신라인의 도당 계기에 관한 필연성을 설명하고 있다.

2) 在唐活動

장보고의 재당 활동은 당에서 무령군의 군중소장이 되었다는 점과 그것을 배경으로 당에서의 해상 무역을 통하여 크게 입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활동의 배경으로서 재당 신라인의 활동 근거지(신라방)와의 관련은 중국에서의 해상 세력 기반을 형성하는 계기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은 장보고의 대당 활동에서의 입신과 관련한 서술은 唐(憲宗)의 정치적 문제 즉 李正己 일가의 발호와 이씨 일가를 토벌하는 선봉대 역할을 한 무령군 소속의 군사였던 장보고 역할이 크게 뛰어나 무령군 군중소장이 되었다는 견해이다.

李永澤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三國史記」나 「新唐書」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창해진이 설치된 828년 4월 이전의 장보고 행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가 최초로 당의 서주에 들어가 무령군소장이 될 수 있었음은 그 당시 서주가 李正己 一家(고구려 유민 - 발해와 유착 - 反唐의 성격 - 李納, 李師吉, 李師道)의 점령 지역이었으므로 당이 이 지역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장보고가 소속된 무령군이 토벌군의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金德洙도 「張保臯의 海上貿易에 관한 一考察」에서 이정기 일가의 몰락은 곧 산둥반도에 있어서 한국인 세력의 부상에 새로운 국면을 마련해 주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李基東 교수도 「앞의 논문」에서 장보고는 이국 출신으로서 말단 사병으로부터 출발했는데, 30세의 젊은 나이로 군중소장으로의 승진은 특출한 군공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곧 군공의 기회를 李師道(이정기일가) 토벌에 두고 있었다.

또한 장보고의 군 공은 이사도 토벌과 관련하여 재당 신라방의 활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3) 新羅人의 在唐 居住活動과 張保臯

신라인이 어느때 어떠한 경로로 중국에 건너가 곳곳에 정주하여 독자적인 거류지와 자치단체를 구성하였는지 자료를 통해서도 확실히 규명되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신라인의 재당 거주 활동과 장보고의 활약상은 圓人의 「入唐求法

巡禮行記」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李永澤 교수는 「앞의 논문」과 「9世紀 在唐韓國人에 대한 考察」이란 연구에서 원인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라인의 재당 거주 활동을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 文登縣 淸寧鄉 赤山村(登州府, 寧海州, 文登縣, 石島港)은 부근의 乳山浦와 함께 산둥반도 연해 일대에 点在한 재당 거주 한국인(신라인) 사회의 중심부임을 말하여 준다고 서술하면서 적산만은 나당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항구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곳은 장보고가 창건한 年收 五百米石의 庄田을 가진 적산 법화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장보고와 재당 거류민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李基東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圓人의 일기를 통하여 재당 거류민의 활동 상을 밝히면서 재당 신라인은 수도권(장안)이외에도 남으로 大運河 淮河流域의 내륙 지대와 북으로는 중국의 연해안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연안 지대를 따라 집단적으로 정주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기동 교수는 이들 재당 거류민들은 장보고의 군사적인 재능과 그의 독특한 개성, 폭넓은 도량과 의협심으로 재당 신라인 사회를 이끌어 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金德洙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고대로부터 중국으로 이주하여 이미 정착하고 있었던 한민족은 물론 나·당연합군에 쫓겨 자·타의로 중국에 유입되었던 이주민과 통일신라 하대에 이르기까지 그 지배로부터 이탈하고자 했던 유랑집단등 유동적인 세력을 결속시킴으로서 장보고는 재당 활동을 통하여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장악했을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3. 淸海鎮과 海上貿易

1) 淸海鎮 設置

청해진 설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 성과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① 장보고의 귀국 동기 ② 청해진 설진 ③ 청해진의 지역적 연구이다.

먼저 장보고의 귀국 동기에 관해서는 재당 시절 중국 해적선이 신라 양민을 강제로 끌고 와 도처에서 노비로 매매하는 것을 목격하고 의분을 금치못하여 이들을 소탕해야겠다는 결심에서 귀국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李永澤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장보고의 귀국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9세기

에 나타나는 신라 본국의 상황은 만성적 기근 때문에 중국으로 이주하려는 자들의 수가 증대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 희망자들을 수송하는 군소, 해상세력들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는 한편 재당 신라인 사회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羅·中·日 삼국 무역을 모두 장악해 보겠다는 포부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李基東 교수와 「앞의 논문」, 浦生京子도 「앞의 논문」에서 장보고의 귀국 문제에 언급하여 唐은 821년부터 李師道등의 번진 토벌 후부터 兵員의 수를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과중한 재정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장보고가 소속된 무령군도 감축 정책이 실시되었을 것이며 장보고가 군을 떠난 계기와 귀국의 동기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다음 청해진 설진 문제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唐書」의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장보고가 다도해중 특별히 완도(청해진)에 설진했는가 하는 문제와 청해와 장보고와의 관련 문제를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해진(완도)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 및 청해진에 관한 공동 목적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金德洙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청해진의 설진은 노예 무역 방지라는 인륜적 동기와 해적의 소탕이라는 군사적 목적이 표면적으로 일치한다고 표현하고 청해진의 설정 이유를 한·중·일 3국의 교류에 중간 기항지로서 중요성과 항해 관리 지로서 그 지리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李永澤 교수도 「앞의 논문」에서 기본적 자료에 나타나는 노비 掠賣의 해적을 방지한다는 목적론을 서술하면서 자료에 나타나는 방대한 예문을 통하여 노비 掠賣 문제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해적이 신라방 사회의 무역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다음 청해진(완도)의 지정학적 연구, 고고학적 연구가 완도 문화원, 해양경영사 연구회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앞에서 밝힌바 있다.

2) 海上勢力의 性格

해상 세력이란 장보고의 해상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던 군사력의 성격과 관련한 문제일 것이다.

이는 杜牧의 「樊川文集」권6에 나타나는 「其王與萬人如其請」이란 기록과 이를 참고로 서술한 「新唐書」東夷傳, 「三國史記」신라본기에 나타나는 「王與保臯萬人守之」, 「後歸國謁王 以卒萬人 鎮清海」라고 기술된 기록의 내용중 만인의 성격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장보고의 군사적 성격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이 문제는 연구자들의 이해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金庠基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만인을 완도의 주변 백성을 규합한 일종의 民軍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李永澤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만인을 군사적 목적과 관련한 전문적인 병사인 私兵이 아니라 무역 종사와 관련한 비전문적인 私民이라 주장하면서 완도를 중심으로 한 연해안 및 도서지역의 토착 주민이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李基東 교수도 「앞의 논문」에서 청해진은 국가의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장보고의 私兵集團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金光洙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만인을 장보고가 동원할 수 있는 군정으로 이해하고 완도를 중심으로 청해진 인근 지역의 주민을 지배할 수 있는 군사적 조직이라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 그 당시 신라 사회의 정치 군사적 상황으로 보면 일만명의 군사력을 제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타난 논거일 것이다.

3) 海上貿易

해상 무역에 관한 내용은 장보고 연구의 기본이 되는 주제이며 고대사학자 이외의 해운, 무역, 경제학과 관련한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졌던 분야이다.

장보고에 관한 최초의 국내 연구(金庠基 「앞의 논문」)도 해상 무역과 관련한 논문임은 고대, 국제무역의 전개라는 중요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고대 무역 사의 재조명이라는 측면에서 ① 장보고의 무역 기반 ② 무역의 형태 ③ 무역 항로 ④ 한·중·일의 무역 경로와 무역의 과정 ⑤ 무역품 ⑥선박 ⑦ 기상 등의 내용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들이 크게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그의 일반적인 견해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자료의 결핍에 따른 한정된 자료의 활용이란 점과 고대 해상 무역 활동을 장보고와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기 때

문이다.

해상 무역의 배경에 관해서 金庠基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통일 이후 신라는 안으로 산업의 발달과 밖으로는 당과의 교통이 크게 열림에 따라 신라 귀족들의 변화된 생활 양상에 따른 물품 수요가 증대되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물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적인 무역(조공)보다 사적인 무역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했다고 지적하였다.

金德洙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장보고의 중국내 교역 활동의 거점을 산둥반도의 첨단에 위치한 登州 赤山浦로 지적하고 이곳은 한반도 서남 해안의 다도해를 따라 북상, 서해를 횡단 도항하는 항로의 중국측 최초의 기항지로서 이곳을 거점으로 초주, 연수, 양주 등지에 분산되었던 한국인의 무역상들을 하나의 교역망으로 편제, 그들을 실질적인 지배 내지 영향 안에 두었다고 하였다.

姜龍洙 교수는 「韓國貿易의 史的 研究(1)」에서 장보고의 무역 사절에 회역사. 견당매물사등의 칭호가 붙게 된 것은 그 개인적 성질을 떠나 일종의 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신라를 대표한 무역이었으며 무역 규모로 보아 장보고의 무역은 적어도 국제무역사에 있어서 신라의 국가적 존재였던 입장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孫兌鉉, 李永澤 교수는 「遣使航運時代에 관한 研究」(1981)에서 해상 무역의 실태를 광범위하게 정리하여 장보고와 관련한 해상 무역에 관한 연구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

4. 政治活動과 海上王國의 沒落

1) 中央政治와의 관련

장보고의 중앙 정치와의 관련은 흥덕왕 3년 청해진 설진을 허가받으면서 중앙 정치권과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겠다. 정치권과의 직접적인 개입은 신라 하대 흥덕왕 사후 왕위 쟁탈전과 관련하여 837년에 金祐徵이 청해진으로 피신하여 장보고에게 몸을 의지함으로써 중앙 정치권과의 관련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李基東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金祐徵이 청해진으로 피신한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김우징은 828년 청해진이 설치될 때 시중의 직에 있었으므로 청해진 설치 결정에 관계하였을 것이며, 김우징 협력자로서 838년 청해진으로 피신 합류한 태종무열계 후손인 金陽도 청해진 설치시에 무주 도독

을 역임했으므로 직책상 청해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여 이들이 재임중 장보고 사업에 대한 후원자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이해는 浦生京子 「앞의 논문」, 尹炳喜 「新羅下代 均正系の 王位繼承과 金陽」에서 같은 성격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장보고의 정치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李永澤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三國遺事」, 「三國史記」, 「新唐書」, 「續日本記」, 圓人の 「행기」 등을 인용하면서 장보고와 신라 정치권과의 관계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金光洙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장보고의 중앙 정치권과의 관여는 청해진 大使로 임명되면서부터라 하고 외형상 흥덕왕으로부터 단순한 임명으로 나타나지만 신라하대 왕위 계승 분쟁으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상황으로 미루어 흥덕왕의 입장에서 장보고의 세력을 우익화 하였다는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2) 納妃問題

납비문제는 장보고 연구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그것은 장보고에 대한 국내 자료가 「叛逆」이라 규정하므로 해서 장보고가 고대사회에서 정립시켜 놓았던 커다란 업적들을 正史라는 王朝中心의 역사 속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장보고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해 왔으나 아직은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납비문제는 「三國史記」 新羅本紀 권10·11에 장보고가 왕위 계승 쟁탈전에 개입하여 신무왕(祜徵)을 옹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원인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나타나는 기록은 장보고가 신무왕이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납비문제는 「三國史記」 신라본기와 「三國遺事」(신무대왕 옆장, 궁파조)의 기록에 나타난다. 즉 신무왕이 왕이 되기 위하여 장보고의 도움을 청하였고 그 대가로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기록이다. 이 납비문제는 문성왕 7년에 논의되었으나 신라 조정의 군신들이 격렬히 반대함으로써 결렬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 金光洙 교수는 「앞의 논문」에

서 납비문제에 관하여 그가 신라 왕실과 통혼을 기도 했던 점은 단순히 신라 조정에 참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라 왕실과 대등한 蕃鎮의 위치를 요구함에서 오는 것이라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납비문제는 납비약속의 위약에 대한 장보고의 태도 변화로서 결국 장보고의 최후와 연결되고 있다. 이 기록은 「三國史記」에서 「據鎮叛」이라 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단정하고 있고 「三國遺事」에는 「慾謀亂」이라 하여 반란을 일으킬 뜻이 있었을 뿐이라 하여 서로 대조적이다.

李永澤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자료가 대조적으로 나타나지만 전적으로 모순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그것은 장보고 피살의 요인으로 작용되어졌기 때문이라 하였다. 李基東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역분을 품고 청해진에서 모반을 꾀하던 중 염장에게 피살당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3) 海上王國의 沒落

장보고의 女를 차비로 삼고자 할 때 신라 조정에서 장보고가 「해도인」임을 내세워 반대함으로서 이에 청해진을 중심으로 반란을 꾀하다가 장보고의 부장인 武州人 閻長에게 피살당함으로써 장보고 생애의 종말과 해상 왕국이 몰락되었다는 것이 현존하는 기록의 내용이며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와 같은 기록에 의해 연구자들은 다각적인 검토를 시도하였고 그 시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그 연구의 내용은 ① 장보고와 신라 조정과의 관계 ② 김양과 장보고의 관계 ③ 염장의 야욕 ④ 군소, 해상무역자들의 동조라는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영택교수, 김상기교수, 이기동교수, 김광수교수 등에 의하여 그 내용들이 소상히 밝혀지고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인용된 자료는 「三國史記」권2 <신무대왕과 염장, 궁과 조>, 「三國史記」권11 <문성왕조>, 「新唐書」권220, 열전145 <동이신라전>, 「入唐求法巡禮行記」 회창5년(845 문성왕7), 「續日本記」권9 등이다.

장보고와 신라 조정과의 관계는 장보고의 군사력이 우징 일파를 보호하고 또 그를 옹립(신무왕)함에 있어 장보고의 중앙 정치권과의 관계가 확고히 되었다. 신무왕 後 문성왕이 즉위하면서 나타난 납비 문제를 통하여 중앙 정치권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장보고의 해

상 세력 확대와 신무왕 용립 등의 정치권 팽배는 신라의 골품 체제에 대한 근본적 부정이라는 의미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문제는 신라 조정과 보수적인 現 신라 지배층과 그 이해가 상충된다는 점이며 장보고의 위치가 비대해진 만큼 왕과 골품 귀족들은 그를 제거하려는 강력한 의도가 작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 다음 김양과 장보고와의 문제도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당시 신라 정계를 보면 신무왕을 용립하는데 공을 세운 김양이 조정의 중심인물이었으며, 장보고 사후 그의 딸이 왕비로 책봉되는 것을 보면 신라 조정과 장보고와의 불화 반목 대립은 실제로 김양과 장보고 두 사람의 그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염장으로 하여금, 장보고의 암살을 획책한 장본인도 김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浦生京子は 「앞의 논문」에서 장보고의 암살과 관련된 염장에 관해서는 일찍 김양이 도독을 역임하였던 무주 지방인이며 신무왕 용립의 군사장의 한사람이었음을 보면 대체로 무주 지방의 호족으로서 김양과 일찍부터 관계가 있었던 인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보고의 암살은 신라 조정의 보수 세력과 보수적 지방 호족이 참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장보고의 피살 이유로 장보고의 독립적인 국제 해상 무역의 독점에 대한 중앙 정부의 반발과 장보고 세력 자체 내의 분열, 불화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 <李永澤 「앞의 논문」> 따라서 염장의 야욕은 국제 해상 무역권의 독점에 대한 야심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 군소 해상 무역자들의 동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청해진 설치로 기존의 서남 해안의 군소 해상 무역자들이 독자적인 무역 행위가 장보고의 통제 안에 들어감으로써 해상 무역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불만으로 장보고에 대한 반격의 기회를 노리다가 신라 조정의 입장에 적극 가세했을 것이라는 논지이다. 따라서 염장도 이들 군소 해상 무역 경영자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보고의 피살후 청해진이 혁파된 851년 2월까지 청해진의 해상 무역 활동은 염장의 휘하에서 움직였고 842년 李少貞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신라인의 입국을 거절하였고 당도 장보고 피살후 청해진의 폐쇄까지 해상 무역의 사실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후 문성왕 13년 청해진을 혁파하고 주민을

벽골군으로 이주시키면서 장보고의 해상 왕국은 몰락하였다.

IV. 맺 음 말

이상으로 신라 하대 청해진 대사 장보고의 생애와 해상 활동에 관한 연구자들의 연구 현황과 주제별 연구 실태를 정리해 보았다.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점은 한정된 자료를 통한 연구 성과가 연구자의 견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장보고 대사의 중요 업적을 부각하는데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산견되는 장보고의 연구 업적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며, 목적 연구를 통한 완도문화원의 『장보고 신연구』와 해양경영사 연구회의 『장보고』를 끝으로 1994년 이후 아직 뚜렷한 연구 업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업적은 역사 속에 묻혀 있었던 장보고 대사의 활동을 밝혀 해양 사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金庠基 교수의 연구(1934) 이후 고대사 전공 자가 아닌 李永澤 교수, 孫兌鉉 교수(한국해양대)의 장보고에 관한 연구는 대한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다. 李永澤 교수의 경우 장보고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인용하여 다음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해주고 있었던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앞선 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지금까지 장보고의 일생과 해상무역, 해상세력, 항로, 재당한국인의 취락 문제 그리고 청해진 설치와 해상 왕국의 몰락까지를 비교적 소상히 밝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지만 장보고 연구를 필연적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완도군은 완도 문화원을 중심으로 청해진이 완도였다는 『三國史記』, 『大東輿地圖』, 『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목적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이다. 이는 장보고와 청해진은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며 장보고의 활동을 군민 전체의 긍지로 정립시키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해진에 관한 고고학적 고찰 인문, 자연적 고찰, 역사적 고찰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6차에 걸쳐 장보고 청해진 유적 발굴 조사가 문화재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모든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많은 성과를 얻고 있었다.

물론 해양경영사 연구의 「장보고」도 본향인 이며 농업 박물관장인 金井昊씨에 의해 청해진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차기연구자들에게 많은 자료를 제시해 준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장보고 연구의 동향은 장보고 연구를 위한 자료의 정리 및 장보고 대사의 역사적인 재조명 작업에 불과할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연구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속단도 가능하게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장보고 대사에 관한 연구는 새롭게 전개될 필요를 느끼며 연구의 전망을 밝혀 본다. 먼저 국내 사학계가 가지는 시야의 협소, 관심과 의식의 빈곤을 벗어나 장보고와 청해진을 중심으로 나타난 9세기 신라 사회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새로운 반성의 계기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에 관한 연구의 전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① 대·당 문제에 관한 연구는 신라방의 위치 및 신라방의 종족의 분포 및 그 성격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② 한일 관계사 연구가 전적으로 일본 학자의 논거에 의존되어 있는바 한일 관계사 연구를 새로운 시각인 신라와 장보고를 중심으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며 ③ 신라 하대 정치 구조 속에 나타난 호족의 분포와 장보고의 해상 세력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완도 장좌리의 유적 및 실측 조사가 진행되어졌지만 장좌리의 구조가 1만명의 병사를 유치할 수 없다는 것과 또 사병, 사민이라면 완도 외의 지역과의 관련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⑤ 장보고의 생애와 관련하여 인동장씨 연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그의 출생 신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도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의 지금까지 활용된 자료 외에 또 다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대 선박과 기상 문제 풍향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중국 지역에 대한 재 고찰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중국의 한국인 거류지는 지금까지 밝혀진 곳보다 더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장보고 연구에 대한 전망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뿐이다.

장보고 연구와 관련한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다.여기의 참고 문헌은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인용한 문헌과 연구 성과들을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외에도 더 많은 인용자료가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1. 史 料

1) 한국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大東地志」
「東史綱目」
「孟子」
「增補文獻備考」
「磻溪隨錄」
「三國史記」
「三國遺事」
「宣化奉使高麗圖經」
「肅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上
「太宗實錄」

2) 중국사료

「舊唐書」
「新唐書」
「唐律疏議」
「唐會要」
「武經總要」
「武備志」
「樊川文集」(杜牧)
「史記」
「三國志」
「釋名·釋船」
「釋名·釋舟」
「宋史」
「宋書」
「吳越春秋」
「郵縣志」

「元史」
「魏書」
「資治通鑑」
「全唐文」
「左傳」
「晉書」
「冊府元龜」
「天工開物」
「清太祖實錄」, 國書刊行會 刊, 昭和 49(1960).
「太平御覽」
「海遊錄」, 「海行總載」
「後漢書」

3) 일본사료

「日本書紀」
「日本後紀」
「入唐求法巡禮行記」
「續日本紀」, 「讀日本後記」

2. 著 書

1) 한국저서

「高麗青磁文化와 康津」, 康津심포지움 자료, 1990. 10.
「圖說 華城城役儀軌」, 水原文化財保存會, 1965.
「報恩 三年山城 基礎調査 報告書」, 報恩郡, 1979.
「三年山城 西門址 調査概報」, 忠清北道 報恩郡, 1980.
「三年山城 - 추정 연못터 및 수구지 발굴조사보고서」, 調査報告 5, 忠北大學校博物館,
1983.
「石村洞 積石塚 發掘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 考古人類學叢刊 6, 1975.
「莞島郡誌」, 1977.
「青銅器時代와 그 文化」, 三星文化文庫 89, 1977.
「韓國古代文化와 인접 文化와의 關係」, 精文研, 1982.
「翰苑」, 亞細亞文化社, 1974.
「海洋調査手尺」, 國立水産振興院.
———, 「全南地方陶磁址 調査報告書」, 1986.
경기도사편찬위원회, 「경기도사」 제1권, 1979.
고병익, 「東亞交涉史研究」, 서울대 出版部, 1970.

- 國立光州博物館, 「康津 永福里 支石墓發掘調查報告書」, 1983.
- 吉田完祐, 「高麗青磁의 發生에 관한 研究」, 崇田大學校 博物館, 1979.
- 金文經, 「唐 高句麗 遊民과 新羅僑民」, 日新社, 1986.
- 金庠基, 「高麗時代史」, 東國出版社, 1961.
- 金元龍, 「風納里包含層調查報告」, 서울大學校考古人類學叢刊 第三冊, 1967.
- , 「韓國美術史」, 汎文社, 1968.
- 任孝宰, 「南海島嶼考古學」, 東亞文化研究所, 1968.
- 金在瑾, 「韓國船舶史研究」, 1984.
- 金海宗, 「韓中關係史연구」, 一潮閣, 1970.
- 당진향토문화연구소, 「내포문화」 창간호·2·3·4호, 1988~1992.
- 木浦·震檀學會, 제3회 環黃海 韓中交涉史研究 심포지움(1991년 8월 15일)
- 木浦大博物館, 「靈岩 靑龍里·長川里 支石墓群 發掘報告書」, 1984.
- , 「莞島郡 地表調查資料」, 1983.
- , 「海南 山二面 綠青磁陶窯址」, 1987.
- , 「海南 珍山理 綠青磁窯址」, 1992年史.
- 夢村土城發掘調查團, 「整備 復元을 위한 夢村土城發掘調查報告書」, 1981.
- 文化財管理局編, 「雁鴨池發掘調查報告書」, 1978.
- 文化財研究所, 「전곡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3.
- 閔德植, 「포천군지」 고대편, 1984.
- 박춘덕, 「태안의 역사」, 태안문화원, 1991.
- 보령군지편찬위원회, 「보령군지」, 1991.
- 서산문화원, 「서산 태안 문화유적」, 상·하, 1991.
- 서성훈·성라준, 「海南月松里造山古墳」, 「國立光州博物館學術叢書」 제4집, 1984.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한강사」, 1985.
- 成均館大學(韓·美共同), 「黃海海流觀測 1984~1987」.
- 孫兌鉉, 「韓國海運史」, 亞成出版社, 1982.
- 沈奉謹, 「金海府院洞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1981.
- 金東鎬, 「梁山 池里土城」, 東亞大學校博物館, 1983.
- 안면도지편찬위원회, 「안면도지」, 1990.
- 安承周, 「公山城」, 公州師範大學 百濟文化研究所, 1982.
- 莞島文化院編, 「張保臯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1985.
- 尹乃鉉, 「商周史」, 民晉社, 1984.
- , 「中國의 原始時代」, 檀國大學校 出版部, 1982.
- 尹龍二, 「韓國美術史」, 藝術院, 1984.
- 李基白, 「韓國史講座」 古代篇, 一潮閣, 1984.
- , 「韓國史新論」 1982.

-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80.
- 李錫祐, 『韓國近海海象誌』, 集文堂, 1992.
- 인천직할시, 『우리고장 인천』, 1982.
- 林孝宰, 『韓國古代文化의 흐름』, 集文堂, 1992.
- 權鶴洙, 『오산리』, 서울대학교 考古人類學叢刊 第9冊, 서울대학교博物館, 1984.
- 將島淸海鎮遺跡 發掘調査지도회의 자료, 1992. 11. 18.
- 全南大博物館, 『全南의 高麗陶磁器』, 1991.
-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전라남도지』 1·2·3권, 1989.
- 전라북도사편찬위원회, 『전라북도지』 상, 1969.
- 全海宗, 『東夷傳의 文獻的 研究』, 一潮閣, 1980.
- 高柄翊 共譯, 『東洋文化史(上)』, 乙酉文化社, 1964.
- 정우영 편저, 『소원대관』, 도서출판 바울, 1990.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8.
- 崔碩男, 『韓國水軍活動史』, 鳴洋社, 1964.
- 崔淳雨, 『高麗時代의 陶磁』, 同和出版社, 1975.
- , 『韓國美術全集』, 同和出版公社, 1973.
- , 『韓國青磁陶窯址 調査研究報告書』 82-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2.
- 崔在錫, 『百濟의 大和倭와 日本化過程』, 一志社, 1990.
-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충청남도지』 상·하권, 1979.
- 한국선사문화연구소·경기도, 『일산 새도시 개발지역 학술조사보고1』, 1992, 아트비전.
- 海運港灣誌, 『韓國海運港灣史』, 1980.
- 화성군사편찬위원회, 『화성군사』, 1990.

* 북한저서

-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전사 I』,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2) 중국저서

- 『唐宋陶瓷大全』, 台北藝術出版社, 1988.
- 黃心川, 『唐代佛教의 對外交流關係研究』, 社會科學社, 1985.
- 『水運技術詞典』, 古代水運與木帆船分冊, 人民交通出版社, 1980.
- 『造船史話』, 中國科技史話論書, 1979.
- 『中國陶瓷大系』 I·II·III, 藝術出版社, 1988.
- 『中國陶瓷史』, 文物出版社, 1989.
- 『中國船譜』, 經濟導報社, 1988.
- 『泉州海外交通社料과編』, 福建省泉州海外交通史博物館編, 1983.
- 孫慶基, 『山東省 地理』, 산둥교육출판사, 1987.

賈蘭坡·王建,『西候度』,文物出版社,1978.

汶江,『古代中國與亞非地區的海上交通』,四川省社會科學院出版社,1987.

裴文中,『山西襄汾縣丁村舊石器時代遺址發掘報告』,科學出版社,1958.

福建省泉州海外交通史博物館編,『泉州海外交通史料 叢編』,1983.

文川·煙台大學,『唐斗 新羅關係研究』,文川·煙台大學學報,1990.

山東文物管理處·濟南市博物館,『大汶口』,文物出版社,1974.

徐吉龍,『陶藝工藝』,創美出版,1989.

宋念慈譯,『陶磁路』,台北藝術家出版社,1980.

煙台市文物管理委員會,『山東蓬萊水城 清斗 古船發掘』,1986.

寧波市,『寧波港海外交通史論文集』,文物管理委員會,1983.

吳振華,『杭州古港史』,人民交通出版社,1987.

——,『杭州市船司研究』,13號,1988.

王茂盛,『登州港 水城·蓬萊古船 登州古港』,大連海運學院出版社,1989.

王崇實(吉林師範學院),『山東威海新羅坊세미나』에서의 演說.

王輯五,『中國日本交通史』,臺灣常務印書館

林繼愈主編,『中國道教史』,上海人民出版社,1990.

林仁川,『福建對外貿易與海關史』,鷺江出版社,1991.

林華東,『河姆渡文化初探』,浙江人民出版社,1992.

塞伯贊,『中國史綱要』,人民出版社,1965.

——,『中外歷史年表』,中華書局,196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新中國的考古發現和研究』,文物出版社,1984.

中國航海學會,『中國航海史1~3卷』,人民交通出版社,1988.

3) 일본저서

足立喜六譯註·監入良道補註,『入唐求法巡禮行紀』(東洋文庫 卷 157),平凡社,1984.

高橋公明,『中世東亞細亞海域에서의 海民交流,濟州道를 中心으로』,『名古屋大文學部研究論集33』,1987.

谷井齊一,『大正 6年度古蹟調查報告』,1917.

關 晃,『歸化人』,至文堂,東京,1966.

今西龍,『新羅史研究』,京城,1933.

島邦男,『殷墟卜辭研究』,汲古書院,昭和 50(1975).

都市整備公社,『十郎川』,福岡住宅,1992.

島羽正雄,『城の歴史』,雄山閣,1977.

島地謙,伊藤隆夫,『圖說 木材組織』,地球社,1982.

마가렛·매들리,金英媛譯,『中國陶瓷史』,悅話堂,1991.

小野勝年,『入唐求法巡禮行紀の研究』1-4卷,1990.

- , 『入唐求法巡禮行記研究』第4卷, 鈴木學術財團, 1969.
- 小田富士雄, 『九洲考古學研究 歷史時代篇』, 學生社, 東京, 1977.
- 田村完誓 譯, 『世界史上の圓仁 - 唐代中國人の旅』, 實業之日本社, 1963.
- 佐伯有清, 『最後の遣唐使』, 講談社, 現代新書, 1978.
- 平野邦雄, 『秦氏 研究(一)』, 『史學雜誌』 70 - 3, 1961.

3. 論 文

1) 국내논문

- 姜龍洙, 『한국무역의 사적연구 [- 나말 대외무역을 중심으로] 『논문집』 5 2 마산대학, 1983.
- 姜仁求, 『三國時代前期 墳丘墓의 再檢討 (1)』, 『金哲坡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 , 『中國東北地方의 古墳』, 『韓國上古史의 諸問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7.
- , 『漢江流域의 土塚墓』, 『三國時代 墳丘墓研究』,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4.
- , 『韓國의 前方後圓墳』, 『韓國史論』 14, 國史編纂委員會, 1984.
- 姜晉哲, 『蒙古의 侵入에 對한 抗爭』, 『韓國史』 7, 國史編纂委員會, 1977.
- 金星중합설계, 『濟州 法華寺 復元을 爲한 研究論文』, 1983.
- 金光洙, 『장보고의 정치사적 위치』, 『張保阜의 新研究』, 완도문화원, 1985.
- , 『蚩尤와 貊族』, 『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8.
- 金旻旭, 『청해대사 장보고의 일생』, 『국향사료보』, 1993.
- 金東洙, 『新羅 憲德·興德王代의 改革政治 - 특히 興德王 9년에 頒布된 諸規程의 政治的背景에 대하여 -』, 『韓國史研究』 39, 1982.
- 金德洙, 『장보고의 해상무역에 관한 일고찰』, 『한국해운학회지』, 1988.
- 金文經, 『唐代 藩鎮의 한 研究 - 高句麗 遺民 李正己 一家를 中心으로』, 『省谷論叢』 6, 1975.
- , 『唐 新羅僑民의 村落과 社會』, 『唐 高句麗遺民과 新羅僑民』, 日新社, 1986.
- 金文經, 『園城寺의 新羅 明神信仰』, 『승실대학교논문집』, 1990.
- , 『在唐 新羅人의 集落의 그 構造』, 『李弘植博士回甲紀念韓國史學論叢』, 1969.
- , 『赤山法花院의 佛敎儀式』, 『史學誌』 1, 1967.
- , 『동아사상의 장보고와 그 해상왕국사람들』, 『승실대논문집 인문과학』 1, 1994.
- , 『장보고, 해상왕국의 사람들』, 『해양경영사연구』, 1993.
- 金井昊, 『완도 청해진의 자연과인문』, 『해양경영사연구』, 1993.
- , 『해류와 한.중항로』, 『해양경영사연구』, 1993.
- , 『서남연안의 대중유적과 청해진』, 『해양경영사연구』, 1993.
- , 『강진청자와 청해진』, 『해양경영사연구』
- 金周成, 『신라하대 지방관사와 촌주』, 『한국사연구』.41, 한국사연구회, 1983.

- 金庠基, 「古代的 貿易形態와 麗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여 (1) - 淸海鎮大使張保臯를 主로 하여 - 」, 『農檀學報』 1; 2, 1934, 1935.
- , 「東方의 海上王」, 『韓國의 人間像 2(革命家篇)』, 新丘文化社, 1965.
- , 「東夷와 淮夷·徐戎에 對하여」, 『東方史論叢』,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 , 「麗末地方群雄의 對中通交」, 『國史上的 諸問題』 4, 1959.
- , 「百濟의 遼西經略에 對하여」, 『東方史論叢』,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 金元龍, 「韓國考古學에서의 放射性炭素年代」, 『考古學』 2, 韓國考古學會, 1969.
- 金在瑾, 「高麗의 船舶」 『韓國船舶史研究』 1984.
- , 「新安 沈沒船의 船體構造에 대하여」, 『學術院論文集 人文社會科學編』 20, 1981.
- , 「장보고 시대의 무역선과 그 항로」, 『장보고의 신연구』, 완도문화원, 1985.
- , 「農民의 抗拒」, 『韓國史』 15, 國史編纂委員會
- 金裕赫, 「장보고의 제해 기상소고」 『월간고시』, 1986.
- 盧德浩, 「羅代의 門客」, 『韓國史研究』 20·21, 1978.
- , 「羅末 新羅人의 海上貿易에 관한 研究 - 張保臯를 中心으로 - 」, 『史叢』 27, 1983.
- 盧泰敦, 「나대의문객」, 『한국사연구』 20·21, 한국사연구회, 1978.
- 閔德植, 「고구려의 도서현성고」, 『사학연구』 36, 1983.
- , 「鐵川 大母山城의 分析的 研究」, 『韓國史研究』 29, 1980.
- 朴東百, 「신라 하대의 나당관계」, 『논문집』 4, 마산대, 1982.
- 朴斗圭, 「淸海鎮大使 弓福 論考」, 『창작과 비평』, 1979.
- 朴方龍, 「新羅關門城의 銘文石 考察」, 『美術資料』 31, 1982.
- 朴相珍, 安喜均, 「花嚴寺 古木材의 構造와 樹種」, 『全大農研報』, 1982.
- , 李元用, 李弼宇, 「木材組織의 圖解」, 正民社, 1981.
- 朴成壽, 「장보고 淸해진 연구의 반성」, 『완도문화원』, 1985.
- 朴秀錫, 「麗末 海上勢力에 관한 考察」, 『高麗大學校教育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80.
- 朴龍安, 「방사성탄소에 의한 韓國 西海岸 沈水 및 沈降現象糾明과 西海岸에 발달된 半淡水 - 鹽水 습지 堆積層에 관한 層序學的 研究 - 」, 『지질학회지』 5 - 1, 1969.
- 박용향, 「黃海南部の 逆風流에 관한 단순이론 모델」, 『해양학회지』, 1986.
- 方東仁, 「三國史記 地理志의 郡縣考察」, 『史學研究』 23, 1973.
- , 「貝江鎮의 管轄範圍에 關하여」, 『靑坡盧道陽博士古希紀念文集』, 1979.
- , 「淸해진의 전략상위치」, 『완도문화원』, 1985.
- 方善柱, 「百濟軍의 華北進出과 그 背景」, 『白山學報』 第11號, 1971.
- 卞麟錫, 「당 숙위제도에서은 나당관계 - 당대 외인 숙위에 관한 연구」 『사총』 11, 1966.
- 成落俊, 「榮山江流域의 甕棺墓研究」, 『百濟文化』 15, 1984.
- 成周鏞, 「大田 甲川流域 百濟城址考」, 『尹武炳博士 回甲紀念論叢』, 1984.
- , 「百濟泗 都城研究」, 『百濟研究』 13, 1982.

- , 「漢江流域 百濟初期 城址研究」, 『百濟研究』 14집, 1983.
- 孫守道·郭大順, 「牛河梁紅山文化女神頭像的發現與研究」, 『文物』, 1986, 第8期.
- 孫兌鉉, 「고대에 있어서의 해상교통」, 『논문집』 15, 한국해양대학, 1980.
- 李永澤, 「遣使航運時代に 關한 研究」, 『論文集』 16, 韓國海洋大學, 1981.
- 宋台鎮, 「古代韓中の 文物交流에 對한 研究」, 『安東教大論文集』.
- 申福龍,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나타난 韓國(新羅)關係記錄과 몇가지 問題點」, 『入唐求法 巡禮行記』.
- 辛鐘遠, 「三國史記 祭祀志研究」, 『史學研究』 38, 1984.
- 申澄植, 「羅唐間的 朝貢에 대하여」, 『歷史教育』 10, 1967.
- , 「新羅의 對唐交涉上에 나타난 宿衛에 대한 考察」, 『歷史教育』 8, 1966.
- 俞炳勇·李允熙, 「羅末麗初水軍과 海防」, 『海上論文集』, 1980.
- 유봉영, 「韓·中間의 古代陸上交通」, 『백산학보』 20號, 1976.
- 尹乃鉉, 「古朝鮮의 國家構造」, 『겨레문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3.
- , 「古朝鮮의 西邊境界考」, 『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 東洋學論叢, 高麗苑, 1984.
- , 「古朝鮮의 西邊境界 再論」, 『韓國獨立運動史의 認識』 白山朴成壽教授華甲紀念論叢, 白山 朴成壽教授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1991.
- , 「古朝鮮의 位置와 疆域」, 『韓國古代史論叢』, 一志社, 1986.
- , 「衛萬朝鮮의 再認識」, 『韓國古代史新論』, 一志社, 1989.
- , 「尹乃鉉教授의 韓國古代史」, 三光出版社, 1989.
- , 「滄海郡考」, 『韓國의 社會와 歷史』, 崔在錫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一志社, 1991.
- , 「涇水新考」, 『傳統과 現實』 第2輯, 高峰學術院, 1993.
- , 「漢四郡의 樂浪郡과 平壤의 樂浪」, 『韓國古代史新論』, 一志社, 1989.
- 尹武炳, 「扶蘇山城 城壁調査」, 『韓國考古學報』 13, 1982.
- 成周鐸, 「百濟山城의 新類型」, 『百濟研究』 8, 1977.
- 尹龍二, 「고려시대 공예(도자기)」, 『韓國美術史 藝術院』, 1984.
- , 「韓國陶磁器의 理解」, 『월간文化財』, 1992.
- 尹炳喜, 「신라하대 균정계의 왕위계승과 金陽」, 『역사학보』 96, 역사학회, 1982.
- 尹容鎮, 「大邱達城城壁調査」, 『考古美術』 9~11, 1968.
- 李恭薦·高美璇, 「試論小河沿文化」, 『中國考古學會 第2次 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1980.
- 李基東, 「9-10世紀에 있어서 黃海를 舞臺로 한 韓·中·日 三國의 海上活動」, 『震檀學報』 71·72 合併號, 1991.
- , 「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歷史學報』 85, 1980.
- , 「新羅下代의 涇江鎮」, 『韓國學報』 4, 1976,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道」, 一潮閣 1984.
- , 「장보고와 그의 해상왕국」 1, 2, 3, 『해운항만』, 1986.

- 李基白, 「高麗太祖時的 鎮」, 『歷史學報』 10, 1958.
- , 「新羅私兵考」,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5.
- 李敦柱, 「완도지방의 지명고」, 『호남문화연구』 4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66.
- 李丙燾, 「百濟의 建國問題와 馬韓中心勢力的 變動」,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 , 「玄 郡及臨屯郡考」, 『史學雜誌』 第41編 第4號.
- 李秉斗, 「樂浪郡縣位置考」, 『韓國學報』 55輯, 1989.
- 李榮文, 「新安 押海島의 先史文化」, 『향토문화』 7, 1982.
- 李明植, 「신라하대 김주원계의 정치적입장」, 『대구사학』 26, 대구사학회, 1984.
- 李永澤, 「9世紀 在唐 韓國人에 대한 考察」, 『韓國海洋大學論文集』 17, 1982.
- , 「張保臯 海上勢力에 관한 考察」, 『韓國海洋大學論文集』 14, 1979.
- 李龍範, 「江華島 防禦의 歷史的 考察」, 『江華島學術調查報告書』, 1977.
- ,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商人의 貿易品」, 『이홍직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신구문 화사, 1969.
- 李元根, 「三國時代 山城研究」, 檀國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75.
- , 「西原地方의 文化遺跡」, 『月刊文化財』, 11月號, 1975.
- 李隆助, 「한국고고학의 卅년에 대한 한 연구」, 『韓國史研究』 15, 韓國史研究會, 1977.
- 李種旭, 「南山新城碑를 하여 본 新羅地方統治體制」, 『歷史學報』 64, 서울, 1974.
- 李宗勳, 「중국산동 반도에서의 장보고와 신라인들」, 『해양경영사 연구』, 1993.
- 李俊善, 「新羅 黨項城의 歷史地理的 考察」, 『關大論文集』 8, 1980.
- 李興宰, 「黃海水傀와 循環에 관한 考察」, 『해양학회지』, 1984.
- 鄭永鎬, 「新羅 關門城에 관한 小考」, 『古文化』 15, 韓國博物館協會, 1977.
- 鄭明鎬, 「報德城發掘略報告」, 『馬韓·百濟文化』 4, 5,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1.
- , 「益山王宮里城址發掘調查略報告」, 『馬韓·百濟文化』 2, 1977.
- 鄭泰辰, 「장보고 유적소고」, 『문화재』, 1990.
- 鄭泰憲, 「청해진과 타군진과의 비교적 고찰」, 『완도문화원』, 1985.
- 鄭漢淑, 「해상 최초의 제왕 -장보고」, 『역사의인물』, 1979.
- 丁仁淑, 「華城郡 南面吉城里土城研究」, 『淑明女子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82.
- 趙由典, 金聖範, 「장보고 대사 관련 유적에 관한 一考」, 『해양경영사연구』, 1993.
- 震檀學會, 「高麗時代 韓中交涉의 諸樣相」, 1991.
- 車勇杰, 「方形土城의 二例」,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1984.
- , 「조선 성종대 해방 축성논의와 그 양상」, 『백산학보』 23, 1977.
- 李榮德, 「牛岩山所在 城址調查概報」, 『牛岩山地域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忠北大學校博物館, 1980.
- 채희국, 「평양성(장안성)의 축성과정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
- 崔光男, 「중국의 조선술연구」, 『한국상고사학보』 1989. 12.

- 崔根泳, 「孤雲 崔致遠의 思想研究 - 詩에 나타난 孤雲의 선비정신 -」, 『韓國思想』 19, 한국사상연구회, 1983.
- 민덕식, 「청해진의 역사적 고찰과 그 성의분석」, 『완도문화원』, 1985.
- 崔夢龍, 「高興 鉢浦 鎮城 發掘調査 報告書」, 『白山學報』 29, 1984.
- , 「蘆花, 甫吉島의 先史遺蹟」, 『湖南文化研究』 제9집, 1977.
- , 「潭陽 齊月里의 石器文化」, 『湖南文化研究』 5, 1973.
- , 「莞島 觀音寺 木造如來坐像과 腹藏遺物」, 『美術資料』 20, 1977.
- , 「荏子島의 先史遺蹟」, 『古文化』 20, 1980.
- , 「長興 巾山里 無文土器遺蹟」, 『考古美術』 153, 1982.
- , 「月出山地區의 先史遺蹟」, 『文化人類學』 7, 1975.
- 최석남, 「신라 말엽과 고려초의 수군활동」,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59.
- 崔柄憲, 「新羅下代社會의 動搖」, 『韓國史』 3, 國史編纂委員會, 1978.
- 崔秉奘, 「東支那海의 관측조류 및 計算潮流」, 『해양학회지』, 1985.
- , 「東支那海 海流의 算定」, 『해양학회지』, 1984.
- 崔盛洛, 「珍島·烏島의 遺蹟·遺物」, 『島嶼文化』 2, 1984.
- 崔在錫, (A), 「9世紀의 在唐新羅租界의 存在와 新羅租界의 日本·日本人保護」, 『東方學志』 75, 1992.
- , (B), 「9世紀 新羅의 西部日本進出」, 『韓國學報』 69, 1992.
- , 「渤海와 日本과의 關係」, 『韓國學報』 63, 1991.
- , 「장보고와 그의 정치·군사집단연구의 기본시각」, 『해양경영사연구』, 1993.
- 河炫綱, 「羅末麗初의 社會變動과 崔承老」, 『현상과 인식』, 1977. 여름호.
- 韓國史研究會編, 「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 三知院, 1987.
- 韓佑勳, 「概要」, 『韓國史』 9, 國史編纂委員會
- 洪再善, 「積城 七重城 調査略報告」, 『佛教美術』 7, 1982.
- 황기덕, 「무산읍 호고동 원시유적 발굴보고」, 『고고민속론 문집』 6, 1975.
- 黃龍勳, 「新石器時代 藝術과 信仰」, 『韓國史論』 12, 國史編纂委員會, 1983.
- 황용휘, 「양평군 문호리지구 유적발굴보고」, 『팔당 소양댐 수몰지구 유적발굴 종합조사보고』.
- 李址斗, 「장보고의 해상활동에 관한고찰」, 『해군대해양전략』 68, 1990.
- 晉永美, 「장보고의 설화 과정과 그 양상 <삼국유사> 소재 [신무대왕, 염장, 궁파] 설화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수선론』, 15, 1990.
- 李種學, 「문무대왕과 신라 해상세력의 발전」, 『동국대 경주사학』, 11, 1992.
- 全京秀·李廷德, 「莞島南端 隣近落島의 人類學的 調査報告」, 『自然實態綜合調査報告』 제2집, 自然保護中央協議會, 1982.

2) 국외논문 - 중국

- 賈蘭坡,「中國細石器的特征和蛇的傳統起源與分布」,『古脊椎動物與古人類』第16卷 第2期, 1978.
- 尤玉柱,「山西懷仁鵝毛口石器製造場遺址」,『考古學報』, 1973 第2期.
- 등 2인,「山西芮城合河舊石器時代初期遺址」,『考古』, 1961年 第8期.
- 邯鄲市文物保管所·邯鄲地區磁山考古隊短訓班,「河北磁山新石器時代遺址試掘」,『考古』, 1977 第6.
- 開封地區 文管會·新鄭縣 文管會,「河南新鄭裴李崗新石器時代遺地」,『考古』第2期, 1978.
- 郭大順·張克舉,「遼寧省喀左縣東山嘴紅山文化建築群址發掘簡報」,『文物』, 1984 第11期.
- 祁廷霽,「山東益都蘇埠屯出土銅器調查記」,『中國考古學報』2, 1947.
- 方殿春·劉丕華,「遼寧阜新縣胡頭溝紅山文化玉器墓的發現」,『文物』, 1984 第6期.
- 山東省博物館,「山東益都蘇埠屯第1號奴隸殉葬墓」,『文物』, 1972 第8期.
- 沈陽市文物管理辦公室,「沈陽新樂遺址試掘報告」,『考古學報』, 1978 第4期.
- 梁思永,「龍山文化 - 中國文明的史前期之 - 」,『梁思永考古論文集』, 科學出版社, 1959.
- 楊子范·王思禮,「詩談龍山文化」,『考古』, 1963 第7期.
- 楊虎,「內蒙古敖漢旗興隆窪遺址發掘簡報」,『考古』1985 第10期.
- 嚴文明,「東夷文化的探索」,『文物』, 1989 第9期.
- 遼寧城博物館外,「長海縣廣鹿島大長山島貝丘遺址」,『考古學報』, 1981 第1期.
- 游修齡,「對河姆渡遺址第4文化層出土稻谷和骨的幾點看法」,『文物』1976 第8期.
- 劉永智,「山東省文登市昆崙山無梁寺系新羅人金清資助建告」,『學術연구총서』, 1991.
- ,「山東威海 新羅坊세미나」에서의 演說.
- 李爾儉,「陝西 藍田公王嶺及其附近的舊石器」,『古脊椎動物與古人類』第10卷 第1期, 1966.
- 林士民,「海上絲綢之路的著名港口 - 明州」, 海洋出版社, 1990.
- ,「당대 동방해상활동과 명주항」,『해양경영사연구』, 1993.
- 林朝榮,「概說臺灣第4期的地史並討論其自然史話文化史的關係」,『考古人類學刊』, 第28期, 1966.
- 傅斯年,「夷夏東西說」,『傅孟真先生學術論文集』, 龍文書店, 1969.
- 浙江省文管會·浙江省博物館,「河姆渡發現原始社會重要遺址」,『文物』, 1976 第8期.
- 浙江省文物管理委員會,「浙江嘉興馬家濱新石器時代遺址的發掘」,『考古』, 1961 第7期.
- 丁驥,「華北地形史與商殷的歷史」,『中央研究員民族學研究所集刊』, 第22期 民國 54 (1965).
- 朱江,「揚州 海外交通史略」, 4號, 1982.
- ,「海上絲綢之路的 著名港口 - 揚州」, 海洋出版社, 1986.

- , 「당과 신라의 해상교통」, 『해양경영사연구』, 1993.
- , 周世德, 「中國沙船考略」, 『科學史集刊』第5期.
- 朱亞非, 「古代登州的對外交往」, 『蓬萊古船 登州古港』, 大連海運學院出版社, 1989.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河南偃師二里頭遺址三·八區發掘報告看報」, 『考古』, 1975 第5期.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內蒙古巴林左旗富河溝門遺址發掘簡報」, 『考古』, 1964 第1期.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二里頭工作隊, 「河南偃師二里頭早商宮殿遺址發掘簡報」, 『考古』, 1974 第4期.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山東隊·騰縣博物館, 「山東騰縣古遺址調查簡報」, 『考古』, 1980 第1期.
- 陳高筆, 「北宋時期 前往 高麗貿易的 泉州舶商」, 『中國海外交通史研究會 海交史研究會 誌』, 2號, 1980.
- 陳希育, 「宋代大型商船『科』計算法則」, 19號, 1991.
- 河姆渡遺址考古隊, 「浙江河姆渡遺址第2期發掘的主要收穫」, 『文物』, 1980 製5期.
- 「中國與海上絲綢之路」, 『泉州國際學術論文集』, 福建人民出版社, 1991.

3) 국외논문 - 일본

- 岡田正之, 「慈覺大師の入唐紀行に就いて」, 『東洋學報』13 1, 1925.
- 宮地直一, 「平安期於新羅明神」, 『圓城寺之研究』, 京都, 1931.
- 今西龍, 「慈覺大師入唐求法巡禮行記を讀みて」, 『新羅史研究』1933.
- , 「眞番郡考」,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昭和 45(1970).
- 旗田巍, 「10~12世紀の東アジアと日本」, 『岩波講座日本歴史』4, 1962.
- 吉田完祐, 「博多遺跡群出土の朝鮮陶磁器」, 『福岡市埋葬文化財報告書』118集, 1985.
- , 「春香新羅神小考」, 『郷土史誌』23, 1985.
- , 「고려청자의 출현」, 『해양경영사연구』, 1993.
- 那波利貞, 「朝鮮支那間の航路及其推移に就て」, 『内藤博士頌壽記念論叢』, 1930.
- 内藤雋輔, 「唐代中國における朝鮮人の活動について」, 『朝鮮史研究』, 1961.
- , 「新羅人の海上活動」, 『大谷史學』9-1, 1928.
- , 「新羅人の海上活動」, 『朝鮮史研究』, 1951.
- 藤間生大, 「九世紀における新羅人の海外での活躍」, 『東アジア世界の形成』, 1966.
- 藤田亮策, 「新羅九州五小京攷」, 『朝鮮學報』5, 1953.
- 末松保和, 「窺興寺種名 附村主」, 『新羅史 諸問題』, 1954.
- 白鳥庫吉, 「漢の朝鮮四郡疆域考」, 『東洋學報』第2卷 第2號.
- 山林遷, 「木材の識別」, 『林試研報』, 1938.
- 森克己, 「日·宋·高麗との私獻貿易」, 『朝鮮學報』16, 17, 19, 20, 1960.

三上次男,「高麗陶磁の起源とその歴史的背景」,『朝鮮學報』99・100, 1981.
 ———,「漢江地域發見の四世紀越州窯青磁と初期百濟文化」,『朝鮮學報』81, 1976.
 森克己,「日・宋交通と耽羅」,『朝鮮學報』21・22合併號.
 西ヶ谷恭弘,「中世・戰國築城變遷」,『探訪日本の城』別卷,『築城の歴史小學館』, 1978.
 石田茂作,「三井寺發見・古瓦・就」,『園城寺址研究』, 京都, 1931.
 石井正敏,「九世紀の日本・唐・新羅 三國貿易에 對하여」,『地理와 歷史』, 394호, 1988.
 ———,「圓仁과 張寶高」,『海上の道と上古代人』, 毎日新聞社刊.
 小室榮一,「方形館雜考」,『探訪日本の城』別卷, 築城の歴史小學館, 1978.
 櫻井清彦,「東北の館」<城>,『日本古代文化の探究』, 社會思想社, 1977.
 玉井是博,「唐時代の外國奴」,『支那社會經濟史研究』, 1932.
 原田彦彦,「信長と秀吉の居城」,『探訪日本の城』別卷,『築城の歴史小學館』, 1978.
 李元植,「西福渡來傳説よ追を」,『讀賣新聞』平成 元年 12月 28日字.
 日野開三郎,「羅末三國의 정립과 大陸해상교통貿易」,『朝鮮學報』16집, 1960.
 ———,「麗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2)」,『朝鮮學報』17, 1960.
 田村專之助,「6世紀中葉における日羅貿易の研究」,『青丘學叢』30, 1939.
 井上秀雄,「新羅軍制考」,『新羅史基礎研究』, 1974.
 佐伯有清,「9世紀の日本と朝鮮」,『歴史學研究』287, 1964.
 ———,「朝鮮系氏族とその後裔にじち」,『古代史の謎を探る』, 讀賣新聞社, 1973.
 中野幡能,「宇佐神宮・起源・發展」,『八幡信仰史研究』, 吉川弘文館, 東京, 1975.
 村上四男,「新羅村主」,『朝鮮古代史研究』, 開明書院, 東京, 1978.
 蒲生京子,「新羅末期お張保阜の擡頭と反亂」,『朝鮮史研究會論文集』16, 1979.
 「唐代中國に於ける朝鮮人の活動にらいで」,『岡山史學』1, 1955.(『朝鮮史研究』, 1961 收
 録)

4) 국외논문 - 서구

E. O. REISCHAUER, 「ENNIN'S DOARY」, 『The Ronald Press Company』, New York, 1955.
 Edwin O. Reischauer, Ennin's Travels in T'ang China(N. Y, The Ronald Press), 1955.
 Panshin, A. J. & Carl de Zeeuw, 1970. Textbook of wood technology(|). McGraw - Hill book Co.
 Alexander C. Soper, 「唐朝名書錄」.
 Arthur Waley, 「白居易의 생애와 시대」.
 FANG EHAO ENU, 「海流計를 이용한 臺灣海峽과 東支那海의 容積輸送量」, 1988.
 Hugh R. Clark, 「한반도와 남중국간의 무역과 국가관계」, 「해양경영사연구」, 1993.